



주신문건 출석요구 “거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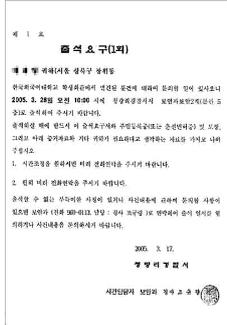
출석요구자 6명, “출석요구 이해할 수 없다” 총학생회, “피해 방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지난 19일(토) 경찰이 주세상 문건과 관련해 학생 6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해 퍼문 이 일고 있다. 특히 출석요구서를 받은 6명 중 이 관련성을 의심받아온 전 총학생회 간부가 아닌 사회과학대 학생회장과 의대발간학추진위원회(의발추) 위원장까지 포함된 경찰 출석 의도에 대해 공중들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2일(화) 출석 요구 대상자 6명은 서울매우터 붉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조사방향이 부당하다고는 주장과 함께 출석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석과 관련된 지난 21일(월) 청라리 경찰서 담당 형사를 만나고 은 서울매우터 총학생회장 박종원(법·법학 00)은 “담담 형사의 말이 ‘사건중결을 위한 사실 확인 절차의 하나’라 사안을 확대하려는 의도는 없다며 출석에 대한 강요성이 없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고현호(사회·행정 01)군은 “이러한 총학생회와 문건이 전 총학생회와 연관성이 없음을 밝혔고 또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다 된 내용인데 무엇이 또 확인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덧붙여 “총학생회 간부가 아닌 사람들까지 출석하게 하는 의도가 공공하다며” 학생은

등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석 요구 대상자 선정은 담당형사가 직접 선정할 것이며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게 박종원 총학생회장의 설명이다.

출석 요구 대상자 6명은 “경찰 조사 방침이



▲6명에게 발부된 출석요구서

부당하다”는 내용 외에도 ‘절정 주세상 문건’을 보았다 하더라도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대학 내의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고 국가보안법을 제치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이후, “내부에 이런 부당한 일이 있다는 걸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서명운동을 가져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최근 이번 주신문건 관련 경찰의 출석요구서와 관련해 총학생회는 “지난 1월 9일 주세상 문건 고발 및 언론에의 공개 이후 일련의 과정, 특히 최근 경찰의 출석 요구서 발송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실려를 꺼져드린 6인의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 6인의 학생들에 대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신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의대 내에서 갑질성 주세상문이 단순한 이윤적으로 소개되거나 학문 탐구의 목적이 아닌 은밀한 주세상가를 양성하고 보급, 전파, 세뇌되는 것은 막아야 할 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 또한 밝혀 문건 자체를 바라보는 입장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곽은정 기자 e2045@hufs.ac.kr



“개강을 즐겨요!” 지난 17일(목)과 20일(토) 흥인배움터 서유대학과 공대 각 개강준비를 했다. 왼쪽은 서유대학 개강파티의 공연 모습, 오른쪽은 공대 해오름식에서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김영민 기자 zero612@hufs.ac.kr

용인배움터, 한총련 탈퇴 무산 총학생회장, “한총련 탈퇴 추진하겠다”

용인배움터 총학생회가 추진했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탈퇴가 무산됐다. 이것은 지난 21일(월)부터 22일(화)까지 열린 ‘한총련 탈퇴 총투표’(투표율 38.9%에서 총투표 성사율인 40%를 넘지 못해 한총련 탈퇴 규정(총학생회 단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이와 상관 없이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관계기사 2면 총학생회장 정승호(자연·환경 00)은 이

와 관련 “전체 투표결과 무관하게, 투표한 학생들 중 86.7%의 학생들이 한총련 탈퇴에 찬성했다”면서 “이 결과는 한총련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총학생회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전 총학생회장 원종권(서유대·영이 98)군은 “엄연히 학생회칙에 비해 총투표가 성립되지 않은데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총학생회의 판단은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총투표 결과와 관련한 내용은 오늘

총투표율	38.95%
찬성	86.7%
반대	10.5%
무효	2.8%
오차	0.1%

(28일) 열리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며 총학생회는 이 회의 자리에서 한총련 탈퇴에 관해 재한발 예정이다.

대학부

지난 21일 이남주 이사장 인터뷰 가져



지난 21일(월) 이남주 신임 이사장과 본 편집장과 디아거스 기자와 인터뷰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남주 이사장은 “마지막 행사를 모교에서 할 수 있게 됐다”며 “배우는 자로서 과거 시민단체에서의 경험을 심어 학교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계기사 2면 이남주 이사장은 이어 △학교운영 △학교발전과 비전 △서울매우터 기숙사 건설 △재단전입금 확충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한편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아직 구체적인 등록금 환부 운동에 대한 안이 나와 있지 않다. 정승호(자연·환경 99) 총학생회장은 “오

서울, 등록금 투쟁 움직임 본격화 용인, 확산위에서 세부계획 잡을 것

서울매우터 총학생회가 등록금투쟁(등투) 농성단을 구성하는 등 등투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것은 지난 15일(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현재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스재 단전입금이 적은 문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문제 △건설사계정 등을 등록금으로 부담하는 문제 등을 내세워 등록금인상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 주장한 ‘교직원 임금인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은 각 단과들과 합의하지 못해 총학생회 단독으로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정리됐다. 총학생회장 박종원(법·법학 00)은 “현재 분과 1층에서 각 단과가 돌아다니면서 농성장을 지키고 있으며 아침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학자요구안이 모아지는대로 의대발간학회의 자비를 가져 요구안을 실현시키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늘(28일) 있을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의 환부운동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등록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학자 요구안을 가지고 학교측과 실행 가능성 여부를 협의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부

임

김미현(동양·태국어 05)
김성진(경상·경제 04)
손보름(자유전공학부 05)
송문란(서양·스페인어 05)
이무림(아시아아프리카·아프리카어 05)
이우림(동유럽·체코슬로바키아어 05)
채송아(아시아아프리카·아프리카어 05)
홍은미(인문계자유전공학부 05)

위 기저를 수습키지로 임명합니다.

오디대학부

실

이번 외대학보는 다음 창간특집주 준비 관계로 4면으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오디대학부

다음 신문은 4월 11일(월)자로 발행됩니다

한총련 탈퇴 총투표는 성급한 판단

▲실 풍자를 살피기에 옮기기 위해 실 풍자를 풀려면 사람은 알 것이다. 실 풍자에서 실을 가지런히 풀어야 영기가 있고 실대에 다시 감을 수 있다는 것을, 실 풍자에서 실을 풀어나는 과정이 번거로운 막무가내로 풀면 다시 감을 때 실은 엉켜버리고 때로는 잘라 버려야 할 때도 생기기 된다. 지난 21일(월)부터 22일(화)까지 용인 총학생회가 실시한 ‘한총련 탈퇴 총투표’는 총투표 성사율을 채우지 못해 총투표가 무산된 것과 상관없이 한계를 드러냈다. 실 풍자에서 실을 가지런히 풀어나지 못하고 미구 풀어나, 풀린 실들이 미구 엉켜버린 모양새가 됐다. 것이다.

▲실 풍자에서 실을 마구 풀어버린 첫 번째 상황은 총투표하기까지의 과정이 많이 생각됐다. 정승호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느끼는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한총련의 본질적 문제에 근거한 판단이 아닌 언론과 정경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근거한 판단은 분명히 오류를 남기기 마련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한 거부할 때도 이것 저것 모든 정황을 세심하게 따져보고 판단을 하지, 느끼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았더라, 총투표는 목적이 너무 치우친 나머지 총학생회는 찬반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성숙된 투표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

▲실 풍자에서 실을 마구 풀어버린 두 번째 상황은 시기상으로 너무 일렀다는 거다. 지금은 한년 초다. 한총련 등록금 인상과 관련 많이 알고 각 단과대의 행태도 많은 시기다. 또한 신입생인 경우 학교생활에 대해 한눈에 알아보고 있어 충분한 사전논의가 있지 않으면 판단이 어려울 시기이기도 하다. 정승호 총학생회장은 투표를 한 막기 후에 하게 되면 일기의 빈을 한층으로 가깝게 채 보내게 돼 반쪽짜리 공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공약은 학생들의 생활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급히 막은 말이 채달 됐다. 단수화물도 씹어보고 단백질도 씹어보고 지방도 씹어보고 천천히 씹을 음미 하면서 씹을 맛을 알아 채지 않았더라 이 이야기로 풀어나고 저 이야기로 풀어나면서 적절한 시기를 그르는 것도 총학생회가 기울여야 할 과제이다.

▲한총련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한총련 탈퇴나 아니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쪽이든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리는가 중요한 거다. 한총련에 대한 평가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그것은 한총련이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보였던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좀 더 발전적인 논의로 한총련이라는 새로운 실태를 감을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이렇게 실만 버린 것 같이 안타깝게 봐준다.

편집장

외/대/학/보/창/간/50/주/년/

친구야, 기억내?

여러분의 눈과 뒤통, 되기 위해, 50년을 달려왔습니다.
저희 외대학보는 창간 50주년을 맞아
학우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신문,
학우들의 이익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신문으로
더욱 힘찬 전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만 사천 학우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함께 하는 그 날까지

사설

학교폭력 예방에도
햇볕정책이 필요하다

일진회 회원만 40만여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무지비한 학교폭력 사태가 연일 뉴스를 장식한다. 이제 갈 때까지 다 갓 갓인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이제야 인식된 것인지 국회에서는 관련법을 제정한다고 하고 법무부에서는 피해학생에게 범행현장을 시켜 교회사까지 고고다. 교내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경찰청은 퇴원경험을 교내에 상주하게 해 순찰과 상담업무 맡게 하려고 한다.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참으로 다양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한낱 도배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위장수위를 넘어버린 학교폭력은 이제 그 뿌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뽑히지 않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저 보이는 일만 자르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감시하고 신고하고 처벌하는 등의 군사적적인 방법으로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없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폭력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가해 학생들은 친구를 때리고 괴롭히는 것을 단선히 늘어난 수준으로 생각하지 그들을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것은 어른들의 영향이 크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상을 강조하기보다는 실력만을 강조하고 목표를 위해서는 남을 밟고 오르는 것마저도 묵인한다. 또한 학생의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개입하고 싶지 않아 모른 채 지나쳐버리는 교사가 부지기수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떠한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한다. 힘이 있으면 잘못을 저질러도 말쑥하게 꾸미고 죄가 없으면 죄를 짓지 않고도 범죄자가 되는 세상이다. 부모들의 태도 또한 이러한 교육과 사회방식은 또 어떠한가. 지금은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포용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제도를 고치고 그것을 학교와 학생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다. 여기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상대가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처벌이 아닌 더 큰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학교폭력은 정부의 규제와 감시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끌어안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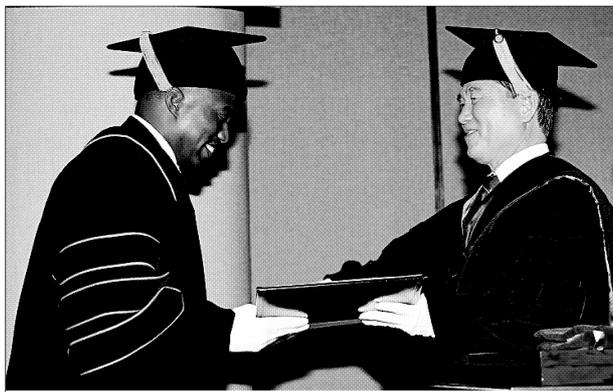
길을 가는 학생의 외투를 벗게 하기 위해서 거친 바람을 들지 말자. 오히려 따뜻한 햇볕이 손길에 학생의 외투를 벗게 할지 모른다.

인·대·만·평
...성오타쿠?
아, 나에게는 내게는 모으고 보자고...
수주
지연관계상 이번 식단은 쉽니다

한총련 탈퇴, 학운위에서 논의

윤인배총련 총학생회는 무산된 투표 결과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한총련 탈퇴에 대해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총련 총학생회와 한총련 탈퇴 규정상 이번 총투표의 결과로는 탈퇴가 불가능하지만 탈퇴를 원한다면 이번 총학생회에 국한된 개별탈퇴는 가능하다는 게 한총련 관계자의 말이다.

한총련 탈퇴와 관련해 총학생회장 정승화군의 의지는 확고하다. 정 총학생



△ 양산 총장이 카비라 콩고 대통령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카비라 콩고 대통령, 명예박사 학위 받아

지난 16일(수) 서울에버랜드 국제관 대령 본교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지난 16일(수)부터 20일(일)까지 유라나리틀 국립으로 방문한 카비라

대통령에게 본교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것이다. 대학원장 류성준교수(중국어과)는 "카비라 대통령은 콩고민주공화국의 오랜 내전을 종식시켜 정치적 안정과 민주화를 이룩했다"며 그 공로를 기

리고 양국의 관계증진과 본교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zeros62@hufs.ac.kr

학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다음달 11일(월)로 외대학보가 창간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반세기를 맞아 외대학보는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출발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외대학보의 발전방안과 관련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러분께 의견과 비평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곳 : oedapress@naver.com ● 기간 : 4월 2일(토)까지

FLEX,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정서 체결

FLEX의 공익성 증진과 저변 확대 기대

우리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인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공익성 증진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렇듯 공익성 증진을 위한 우리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인정한 인준서가 발급된다.

FLEX는 우리학교가 1989년부터 시행해 온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7개 언어에 대해 매년 4회씩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FLEX는 다 기관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과는 달리 쓰기와 말하기 시험을 별도로 시행하여 실질적인 언어사용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과, 영어뿐만 아니라 7개 외국어에 대한 인준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임선천 기자 jroworld@hufs.ac.kr

hufs낭만초

싱싱생생한 내 마음, 어떻게 잡죠?

Q 요즘 봄바람이 날 때마다 싱싱생생하고, 애초에 마음먹었던 야심찬 계획들은 온데간데 없어 사라져 버렸어요. 공부도 손에 잡힐 듯이 안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 불이 이게 뭐야, 특별히 할 것도 없고, 꼭 해야 한다는 욕심도 없고... 집과 학교, 커피 두는 것 같은 재미없고 지루한 생활. 그렇다고 일일이 확실하게 보살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활에 내 충성을 저당 잡히는 너무 아까워, 무의미해. 뛰쳐나가고 싶어.' 이런 생각들이 꼬여 꼬여 괴리를 들고 우울해지고... 요즘 뭘 하며 하루를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저 이런 기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A 봄과 마음을 움켜쥐고 싶은 마음이 불타고 따뜻한 봄바람도 느껴지니,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들지요? 봄바람을 타는 것은 예민한 감수성과 역동성이 느껴지는군요. 이럴 땐 과감히 밖으로 나가 봄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세요. 즐겁고 신나는 겨울바람에 비해 봄바람은 얼마나 살갑고 따스해요! 사탕물 못지않게 달콤하니까요, 유쾌하고 씩씩하게 웃고 싶을 때 봄바람을 마음껏 느끼고 즐기세요. 봄바람을 마음껏 느끼고 즐기세요. 봄바람을 마음껏 느끼고 즐기세요. 봄바람을 마음껏 느끼고 즐기세요.

기분이 풀릴때쯤 때는 밖으로 일어나 밖으로 나가 기분이 좋아지는 활동을 해 보세요. 운동하기, 무작정 걷기, 등산하기, 산책하기, 신나는 음악듣기, 맛있는 것 먹기, 친구들과 가벼운 스키 등. 그러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생길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면 저 자신이 하고 싶은 생산적인 활동(학업, 진로준비, 우정, 동아리활동 등)들을 할 수 있어요.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박남숙교수

Table with financial data for Hufs. Columns include '제11기 2004년 12월 31일 현재' and '제10기 2003년 12월 31일 현재'. Rows include '회사업: 한국외국어대학교융인컴퍼스 생활협동조합' and various financial items like '자본금', '이익잉여금', '부채총계'.

Table with financial data for Hufs. Columns include '제 11기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and '제 10기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Rows include '회사업: 한국외국어대학교융인컴퍼스 생활협동조합' and various financial items like '과목', '금액', '잔액'.

이남주 신임이사장 인터뷰

“시민단체 경험 통해 투명한 운영 해 나갈 것”

기숙사 건설 방법 · 캠퍼스 이전안, 검토하겠다



이남주(李南周) 1968년 미국 하와이주립대학 수학

1968년 10월 11일 서울 출생
 - 서울대사범대수학과교육학과 졸업
 - 199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 학사
 - 1996년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석사
 - 1998년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988년 미국 하와이주립대학 수학
 - 대통령직속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위원
 - 시민사회재단재단대표의 심임중동대표
 - 제 2대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보인동위원회의 이사장

우리학교 새 이사장이 됐다. 소꿉친 한승헌 전 이사장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그의 후임으로 내가 이사장이 될 줄은 몰랐다.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이다. 한승헌 전 이사장이 짧은 기간에 떠났지만 업무상이라는 훌륭한 업적을 남겨 뒤를 잇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개인적으로는 내외 모교로 외대에서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되고 책임감을 느꼈다. 마지막 봉사활동을 위해 할 수 있게 됐다.

이사장이 되기 전에 시민단체에서 오랜 기간 일했다. 학보운영에는 어떻게 중용시킬 것인가 시민단체에서 14년을 일하면서 시민사회운동으로 많이 배웠다. 그곳에서 경험한 민중적이고 투쟁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교운영으로 적용할 것이다. 이사장이 된 것은 아마도 이사장이 책임지는 모든 의사구조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구조가 아닌 합의체로 학교를 운영하며 이사장은 소수의 의결로 학교를 운영하며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그 때 앞서 이곳은 시민운동단체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학교이기 때문에 배후는 자제를 가지고 일하겠다.

우리학교 발전에 대한 생각은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좋은 교육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좋은 학생들이 오고 학생들을 졸업시킬 수 있다. 총장님과 교수가 이를 위해 노력하는 역할과 교사들이 사하는 어떤 뒷받침을 할 때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교육원을 담당할 수 있는지

를 고민하는 역할이다. 좀더 나은 교육을 위한 촉매 역할을 이사회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타 대학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학교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타 대학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러모로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학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질을 높여야 한다.

현재 서울대부터 기숙사 건설에 대해

말이 많다. 기숙사에 대한 생각은 지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캠퍼스 이전이 있는 방식은 절리는 게 너무 많다. 서울대부터는 건축가한테 할 일을 맡고 기숙사는 지어야 했고 재단에서는 안 좋고, 이런 상황 때문에 기초공사 예를 많이 쓴 것은 알지만 기숙사 건설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너무 많다. 또한 건축비를 회수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의 배는 비용 또한 필요이상으로 많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 기숙사 짓는 방법은 없을까를 머mare로 한번 더 검토해보려고 한다.

그동안 29일 있을 이사회 결정은 어떻

게 되는건가

재단원 방식으로 기숙사를 짓느냐 마느냐를 가리는 거부결정보다 기숙사 짓는 방법을 더 알아보는 회의가 진행될지 않을까 생각한다.

취임 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곡동 제

3캠퍼스 안을 언급했는데 자곡동과 세곡동에 있는 2만평은 우리 소유의 땅이다. 우리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장부규제에 묶인 채로 가만둘 수는 없다. 이문동 캠퍼스가 2만 7천평인데 너무 좁다. 건물의 고층화도 한계고 좁은 캠퍼스의 대학본부 모습도 어울리지 않는다. 캠퍼스 이전이 이전에 비해 훨씬 낫다. 과거에도 캠퍼스 문제에 대해 고민해왔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현재는 이전을 할 계획이므로 놓고 검토를 시작할 것이다.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재단 재단장인들은 6억이 전부이고

이것은 몇 년째 같은 액수다. 학생들은 이사회에 재단장인들을 축출을 기대하고 있다. 재단장인들은 재단장인들에 대한 요구는 설립자 체제 때 가능하지 않자 우리대학처럼 설립자가 경영해서 물려서졌다고 선언하고 손을 뗀 경우에는 주장하기 힘든 구조다. 그리고 학교가 수익을 내기 위해 장사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모금에 들어가자.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자 체를 자원으로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이다. 기성인 학교에 투자하는 건 본질에 어긋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공정 기자

연재 2 · 김진규교수의 캄보디아 해외봉사 활동기행

크메르족, 고난의 역사와 아련한 문화의 향기

박사과정 없는 원림 프놈펜대학 1월 8일 토요일

프놈펜 대학교 외국어학부 영어과 호크 로트(Hok Roth)교수의 안내를 받아 2층 104호로 가니 청년 교육 소초트반 차만 챔만(Chanman)과 프놈펜 대학부총장 라브 지프 에야브 교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참나 차만이 간담하게 나라 사정을 이야기 해줬다. 특히 꽃 피운 이콘 크메르 부트 군에 의한 1970년대 초 모든 대학 교육의 폐쇄화 이야기는 너무나 비참했다. 캄보디아 모든 대학과 학교를 폐쇄하고 교수의 80~90% 이상을 처형하고 시골로 소개진 대학생 50%를 죽임으로 몰아넣는 상상할 수 없는 만행은 너무나 슬픈 이야기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킬링필드(Killing Field) 사건으로 인구가 2000만 명이나 희생되었다고 하는 실제의 한 단면이다. 영화 필름들은 캄보디아를 해독하고 있다지만, 그 당시 완벽한 유토피아 건설이 목적이었는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 데 외부세계는 속수무책이었는지? 미국과 중국이 그런 정부 편에 있었는지? 국제장외의 인권성이 무슨 대의는 무었을 썼는 지? 차원의 잘못과 왜 그에게만 이러한 자위와 불행이 닥았는지 아직도 미약한 것이 실연이 깊다.

그들은 그런 고난의 시대를 지나 절멸만 남은 대학을 새로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새로 온 학생들이 희생되어 학과를 제대로 가르칠 일인데 양성이 지금 최우선 과제라고 한다. 나라의 가장 중요한 종합대학으로 학생 수가 5000여명인데 아직 박사과정도 없다고 한다. 완전히 기본 시설과 교수진이 확보된 뒤에 박사과정을 먼저 예정이라고 한다. 서두르지 않는 느긋한 이 나라 민족의 정신인 것이다.

저녁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될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회의를 한다. 각 자 편의사항이나 비판 등을 이야기했다. 한 여학생이 젊은 이콘 들만 함께 일하는 것도 인연이며 기댈만 만해도 일생의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다. 그리고 참론에 끼어든 것은 신이고 사탄하는 노교도 노교도 아니다. 자기가 이러한 그를 활용을 이전에 두 번째야 했을 때 그렇게 못한 것이 무척 후회된다고 한다. 웃 웃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홍 조각운동의 정수 국립 박물관 탐방 1월 9일 일요일

학생들이 개작시 예정연습 차 학교로 이동했다. 한 여학생이 젊은 이콘 들만 함께 일하는 것도 인연이며 기댈만 만해도 일생의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다. 그리고 참론에 끼어든 것은 신이고 사탄하는 노교도 노교도 아니다. 자기가 이러한 그를 활용을 이전에 두 번째야 했을 때 그렇게 못한 것이 무척 후회된다고 한다. 웃 웃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1920년대 개관한 이 국립박물관은 약 300여종의 크메르 시인과 고고학에 대한 책과 더불어 각종 석기 및 청동기 시대의 조각 작품, 전통 의상, 보석, 무기, 조각, 일반의 의복, 거문 및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후난, 참과, 현대, 앙코르시대의 예술품 및 크메르 미술과 고고학에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소장품이 파괴된 채로 전시되어 캄보디아의 험난한 역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앙코르 유적지 한자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국립박물관에 옮겨다 놓는 것도 많이 있었다. 호지처럼 버려져 유물들은 잘 못이 이콘 공산주의 혁명과 문명은 옛 중국의 문화혁명 시대처럼 문화유산에 대한 파괴가 광범위 있었다. 베트남의 호지동, 러시아의 레닌이나 스탈린과 같은 운동은 했지만 문화유산은 잘 보존했는데, 이것은 서양인들은 공산주의 운동과 공산주의 공산주의 운동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다. 앙코르 문화의 위기는 아니 세계의 가장 위대한 인류 문화유산이다. 이들을 보존한 크메르족의 과거사와 문화사가 갈수록 궁금하다. 빈학한자 크메르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용인 스쿨버스 증차, 여전히 문제는 남아

지난 21일(월)부터 용인매출로 인한 노선과 안산·군포 노선의 등·하교 스쿨버스 1대씩 증차했다. 이번 두개 노선의 증차는 학생용 스쿨버스의 수요 급증과 학부모들의 지속적 증가 요구에 이응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증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증차에 대한 불만과 스쿨버스의 증차에 대한 학생대표를 맡고 있는 동아리연합회(동연)회장 박정준(경상남도·합동 90)은 "스쿨버스 문제 해결은 학생들의 수요와 이에 관련된 '아직' 정책적인 학생들의 수요 파악이 안돼 있고, 운영비로도 학생들의 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스쿨버

스 제조장이나 증차에 대한 논의가 어려운 부분 이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책위원회 한일식(자연·전차물리 90)은 "하차만 학교도 학생들의 수요 파악만 하면 증차를 하거나 노선의 제조장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 스쿨버스 개설에 대해 교통소외 학생 대표 박병준은 "확실한 수요파악이 어렵고 학교 측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야 하교 스쿨버스 시건은 10분 늦게거나, 이후 버스를 신차로 교체하는 등 학생들의 편의와 관련된 이야기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zers0512@hufs.ac.kr

오는 31일(목), 영어센터, 다음달부터 RDR 정

상형 정기대원총회 열린다

용인대학교 생활체육동맹은 오는 31일(목) 오후 3시, 2004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 200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확정을 위해 후정동 2번 건물의 당에서 11차 정기 대원총회를 가진다. 부의 안전으로는 △2004회계년도 감사보고 승인 △2004회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2004회계년도 잉여금 처분(안)의 승인 △2004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05년 조항 임원의 선출 등이다.

영어센터, 다음달부터 RDR 정

규강좌열어

우리학교 영어대학 영어센터는 지난 23일, 24일 (목) 김병민 박사의 Read, Write, & Write (RDR) 무료 공개강좌를 주최한 것에 이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RDR 정강 강좌를 시작한다. 강좌는 Advanced Course와 Basic Course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2개월의 과정을 거친다. 하루 100명의 강좌가 열리며,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그 외 영어센터에서는 다음달부터 열어서정일도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어센터 02-2173-2265, 02-965-0384로 문의하면 된다.

2005학년도 교직원정 이수신청 공고

- 신청자격**
 - 1) 교직원에게 설치된 학과의 2학년(3학기)제학생
 - 2) 2004학년도 1학기 휴학한 상태에 있는 3학년(5학기)제 학생
 - 3) 1학년 2학기를 충족하고 복학 후 1학년 2학기과 2학년 1학기 과정을 마친 3학년(4학기)제학생
- 신청기간** : 2005. 4. 11(월) ~ 22(일) 17:00까지
- 신청방법**
 - 1) 학년(3학년) → 온라인 신청 (학교홈페이지-총장실(배우자)방-로그인-수업정보-교직원(수신청))
 - 2) 학과별 → 사물인터넷교과를 통한 온라인 신청서 제출 (수 신청서 양식 사물인터넷교과, 용인캠퍼스 교무과 비치)
- 신청기간**
 - 1) 교직원(수) 신청 학생수가 아래 소속학과 선반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순서에 신청한다.
 - 1) 학년(2학기)까지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정렬평균 기준)
 - 2) 1학년이 동일한 경우 정렬평균이 우수한 자
 - 3) 교직원(수) 정렬 평균이 우수한 자
- 2005학년도부터 1학과의 선반인원** "유형에 필요한 학점비율"에 의한 최저학점 이상 이수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변경

2005학년도 교직원정 설치(과목) 및 선반인원

대학명	학과(전공)	사물	선반인원	대학명	학과(전공)	선반인원
영어	영어학부	14	11	상경	국제통상학	8
		9	7			경영학
사범영어	불어	9	7	경상	국제경영학	5
		9	7			경영학
사범영어	독어	15	13	인문	철학	12
		15	13			수학
사범영어	러시아어	29	22	자연과학	물리학	4
		29	22			화학
물리영어	중국어	30	12	자연과학	화학	4
		30	12			물리학
이사가	일본어	10	3	자연과학	물리학	4
		10	3			화학
이사가	어업어	15	11	경영사범대학	경영학공학	15
		15	11			경영학공학

- 선정기준** : 2005년 5월 10일경(당첨결과) 게시된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 유사사항**
 - 1) 교직원정 이수신청과 선반이 교직원정 이수해야만 교직원정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음.

2005. 3. 21
사범대학장

'06년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공고

- 모집대상**
 - 1)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를 가진 자
 - 2)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를 가진 자
- 지원 및 접수 기간**
 - 1) 2005. 3. 14 ~ 4. 25
 - 2) 2005. 3. 14 ~ 4. 25
- 지원서류**
 - 1) 지원서(사관학교) → 1부
 - 2) 신분증 사본(사관학교) → 1부
 - 3)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4)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5)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6)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7)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8)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9)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10)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11)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12)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13)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14)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15)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16)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17)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18)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19)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20)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21)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22)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23)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24)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25)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26)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27)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28)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29)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30)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31)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32)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33)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34)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35)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36)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37)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38)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39)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40)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41)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42)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43)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44)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45)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46)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47)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48)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49)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50)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51)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52)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53)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54)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55)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56)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57)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58)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59)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60)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61)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62)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63)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64)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65)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66)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67)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68)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69)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70)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71)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72)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73)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74)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75)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76)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77)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78)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79)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80)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81)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82)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83)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84)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85)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86)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87)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88)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89)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90)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91)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92)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93)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94)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95)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96)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97)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98)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99)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100) 2005년 3월 31일 현재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4. 재학사항**
 - 1)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2)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3)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4)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5)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6)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7)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8)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9)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10)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11)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12)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13)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14)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15)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16)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17)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18)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19)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20)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21)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22)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23)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24)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일 기준 고졸 이하의 학력(사관학교) → 1부
 - 25) 재학 중인 학생은 1991년 1월 1



반일 촛불시위 현장을 가다

독도주권수호를 위한 작은 초 하나

지난 23일(수) 저녁,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는 작은 촛불 집회가 열렸다. 정수, 위만부 피해 할머니, 통일연대,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매 주 수요일 이 곳에 나와 일본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한 손엔 촛불, 한 손엔 피켓을 들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위만부 피해 할머니의 작은 제주는 지나치는 시민들의 발목을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저들의 사과를 받아야 비로소 눈을 감고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인류는 과거 문제에 대해 머리 속에 사과한 독일을 용서했다.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자에 한해 용서가 가능한 것이다. 지금 일본의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 이주희(27)씨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와 역사 왜곡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학생당원 김진실(26)씨도 "지금 일본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독도를 노린 것뿐만이 아니라 예전 제국주의의 돌이키고자 하는 열의를 표명"이라며 "대학생들이 앞장서 일본의 버릇장머리를 고치고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만부 피해 할머니 장길순(72)씨의 발언이 시작되자 주위는 숙연해졌다. "우리 한민족이 남카노스 막론하고 하나가 되어야 일본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다. 나는 저들의

사과를 받아야 비로소 눈을 감고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마이크를 쥐고 있는 할머니의 손과 인상은 가늘게 떨었고,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큰 박수로 할머니의 의지에 동조했다. 곧이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라디오 방송을 캐리커처한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전화통화가 흘러나왔고, 참가자들과 시민들은 통쾌하게 웃으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젊은이들이 역사인식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야"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주권 수호하자", "고이즈미는 공식 사과하라!" 이들의 강경한 구호는 일본 대사관을 향한 행진으로 이어졌다. "일본 뒤에 미국 있다! 미국 대사관도 가자"라며 강한 어조로 사람들의 눈길을 끈 안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국장 윤미향씨는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은 미국인을 위협적인 나라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을 규탄한다"며 행진 내내 강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는 "일본에 의한 피해자들은 점점 고령화 되면서 사라지고 있다. 이제 젊은 이들이 역사인식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젊은이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많은 인원은 아나지지만 대학생들도 시위에 함께 참여했다. 새내기들에게 일본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함께 참여했다는 인양대학교 김혜림(인문학부 2영)은 "일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자리에 나와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다"며 "배편 이런 집회가 열리는 데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들이 다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리 선주배들과 함께 참석한 서울산업대학교 새내기 위원장(보통공학과 1)군은 "지난 주 반미 시위에 참석했다가 이 집회가 주기로 되었다는 것을 알고 선배들과 함께 참석하게 됐다"며 "각 대학 학생회에서 학생들을 모아 단위로 참석해야 한다. 적은 인원으로 이뤄지는 소규모 집회는 큰 힘을 가질 수 없다"고 단정해 말했다.

"일본 대사는 한국을 떠나라"

일본 대사관 앞에 도착한 이들은 삼엄한 경비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구호를 외쳤다. "일본 대사는 한국을 떠나라!", "일본 정부는 공식 사과하라!" 비호 소규모였지만, 그들의 관심은 대사관을 떠나볼 뉘 못 우려했다. 그들은 독도수호의 열정을 노래에 담아 '홀로이리'를 부르기 시작했다. 대사관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취(43)씨는 "대한민국 국민인 한 사람으로서 이런 시위에 참가하지 못해 미안할 따름"이라며 "일본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당장 처벌당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리를 높였다. 오는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일본 교차로 검거이 이루어지는 다음 달 5일(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9일(토)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전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임선현 기자 jworld@hufs.ac.kr



노회천의원(민주노동당) 강연, '민주노동당과 민생이야기'

"세상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지난 24일(목) 저녁 7시, 인문과학관 2층 대강당에서는 노회천의원(민주노동당)의 강연회 '민주노

동당과 민생이야기'가 열렸다. 강단에 오르지 앞서 그는 우리학교 학생들과 반갑게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그의 강의 첫머리는 우리학교 주사문헌에 관한 발언으로 시작했다. "학교에서 책이 발견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고 학생을 잡아간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학교에서 미국 달러가 한 통지 나왔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는데 말이지"



그는 단상에 놓인 생수 이야기를 시작으로 소독의 재배과정과 사회복지에 대해 소개하

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에 절대 상충해 되어서 안 될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의료, 세 번째는 주택이다" 그는 교육이 상충해 되었을 때의 폐단에 대해 힘주어 말했다. 오늘날 '누가 이 대를 세습하는 현실을 보장해 주고 있는 매카니즘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교육을 위해 1년간 들어가는 예산이 18조로 책정되어 있으나, 사교육비 지출은 이의 2배에 달하는 30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사교육비를 들어간 돈을 세금으로 보냈을 경우, 무상교육을 하고도 남는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빗어올라가서 케어플레이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지만, 한 사람에게 불공평을 한 사람에게 권총을 주는 꼴이라며 통쾌하게 비판했다.

그의 이런 생각은 부유세로 이어졌다. 그는 "나라마다에서는 우리를 '부자들 때려잡는 당'이라고 비난하지만, 우리는 부자를 때려잡지 않는다. 부유세를 걷기 위해서 오히려 부자들을 보호해야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또 한편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임소칼비를 들고 있는 부자가 불갈비로 종류를 바꾸고, 남는 돈으로 굶주린 사람에게 리본을 사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해법"이라며 "우리나라 부자들은 내가 더 큰 알수고기를 먹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라"고 하는 꼴이다. 우리보다 더 못사는 나라들도 분배를 잘 실현하고 있는데 말이다"라고 고탄했다.

두 시간 가량 계속된 이번 강의는 그의 특유의 유머와 친화적인(寸鐵)인 문법으로 일종의 지루함을 없애 주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생각도 실현하지 않으면 절반의 가치도 가지지 못한다"며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굳혔다.

임선현 기자

정부는 감정적 접근 자제해야

지난 18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에선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독도를 그 지방의 영토로 규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때만 되면 나타나는 일본의 말년, 말들은 들켜치더라도 이 지경에 이를 때 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 한 번 없었던 정부의 일일 한과 무가벼움에 다시 한 번 실망을 금치 못했다.

지난 7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간의 상호 우호증진이라는 미명 하에 자신의 남은 임기 중에 일본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얼마 전에는 정상회담도 겸합창의 독도 방문을 외교에서 막기도 했다. 이유인즉, 공연히 일본을 자극하는 행동은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결국 현 정부의 대외의고 방침은 물어두기와 눈치보기로 요약할 수 있다. 말야두고 피해가는 것이 우호에로의 진전은 아니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의 말쑥법적, 무정치적 논리는 오히려 설한 한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일 관계가 한류의 순풍을 타고 경제적 이인과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또한 굳이 세계적, 경제적장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본과 마찰을 일으킬 필요도 없다. 하지만 독도의 문제를 단순히 국가 간의 손의 다툼이나 정치지배권(헤게모니)의 하위개념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독도의 문제는 일토론의 문제이다.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 주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언제나 강경(강심)의 정치로 국가의 주요사안을 처리해 왔다. (물론 이것이 현 정부와 과반수의식의 여당을 탄생시켰지만 말이다.)이제부터라도 아니 독도 문제 만큼만이라도 강경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과 논리로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독도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 시료를 수집하고 합리적 근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록 국민들의 분노를 틈타 슬그머니 합세하는 식으로 여론을 동원하던 했지만, 독도 문제를 비롯해 일본과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한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일본 교차로 위원부 문제 등 हम 어야 할 산이 많다. 바다 독도 강경에 대해서 복합의 핵무기를 설치하자는 쪽의 말처럼 독도문제 미지 그렇게 강경적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일훈 (법·법학 99)

신용의 상징 - 비둘표
우의양행
www.yuhan.co.kr

내 피부, 오늘도 굿모닝!

톡톡/바이탈씨 먹는 소리, 탕글! 내가 상큼해지는 소리
산뜻하게 깔끔하게, 내 피부는 오늘도 싱그러우려!

- 바이탈씨 한 알포에 비타민C 500mg이 가득!
- 피로, 기미, 주근깨 걱정은 이제 그만!
- 비타민 B₁, B₆와 함께 토크페를 함유!

기미, 주근깨-굿바이!
바이탈씨
*만약에 상용제

120정량 4000원 정도 있습니다